JFWF Brief
Jeonnam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ol. 03
2020. 09.
전남여성가족 브리프

발행처 (재)전남여성가족재단 발행인 안경주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Tel 061-260-7300 Fax 061-260-7319 www.jwomen.or.kr

전남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촉진 방향과 과제*

김 미 숙(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전남의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전반의 일·생활균형 촉진을 위한 사업운영 방향과 행정·기업·지원기관 등 참여주체별 실천사항, 향후 과제를 제시함.

01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노동문화가 '장시간 근로'로 대변될 만큼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음. OECD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통계를 보면 2014년도 한국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76시간이고, 2018년도는 1,993시간으로 4년전에 비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문화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자발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로방식의 도입시 기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함. 또한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생활균형 제도의 운영을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 노동시간 관련 정책은 노동권과 부모권, 그리고 부모의 노동활동을 다른 활동과 병행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지원"의 차원을 넘어 "일·생활균형"을 통한 인간성 실현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한광수, 2017).
-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방향과 전남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도 내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조사를 수행함. 전남의 강소기업과 스타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영역별 제도 추진현황과 정책수요를 확인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담기구의 사업운영 방향과 참여주체별 실천사항을 도출하여 제안함. 이번 조사에는 총 61개(91.04%) 기업이 참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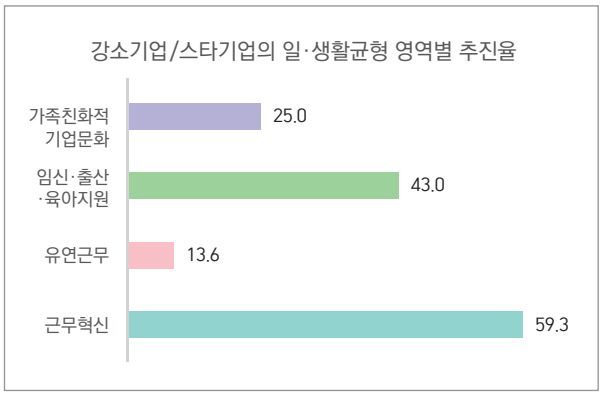
---

* 전남여성가족 브리프 제 3호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미숙·유상미(2020). 전남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촉진방안. 전남: (재)전남여성가족재단

02 전남 강소기업/스타기업의 일·생활균형 추진 현황

전남의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의 근무혁신 추진, 유연근무제 도입, 임신·출산·육아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일·생활균형 4개 영역을 조사한 결과 근무혁신 추진과 임신·육아·출산지원의 영역의 활성화 정도가 가장 높고, 유연근무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남. 영역별로 가장 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자유로운 제도의 사용으로, 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 분위기 조성과 직장문화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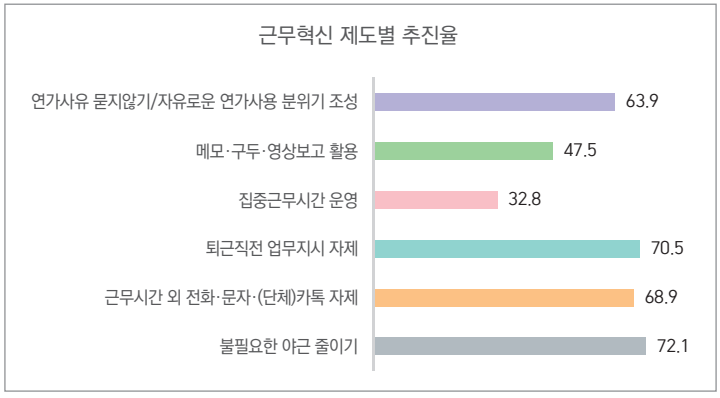
- 근무혁신 평균 추진율은 59.3%로 4개 영역 중에 추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종업원이 3명 이상인 44개 사업체의 임신·출산·육아지원 제도 평균 도입율은 43.0%로 근무혁신에 이어 높게 나타남.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의 평균 도입율은 25.0%이고, 유연근무 제도의 평균 도입율은 13.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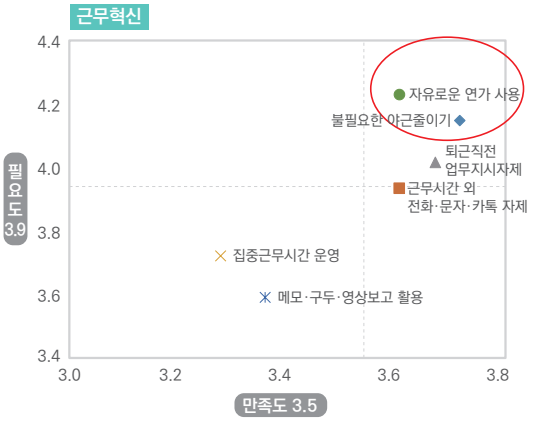


1. 근무혁신 영역

가장 높은 추진율을 보이는 근무혁신은 제도별로 응답기업의 72.1%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를 추진하고, 70.5%가 '퇴근직전 업무지시 자제하기'를, 68.9%가'근무시간 외에 업무관련 연락 자제하기'를 실천하고 있음. 그 외 '연가사유 묻지 않기/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은 63.9%,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은 47.5%, '집중근무시간 운영'은 32.8%의 추진율을 보임.

근무혁신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제도별로 5점 리커트 점수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필요성 평균은 3.9점이고, 만족도 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남.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점수를 환산하면 근무혁신의 필요성은 73.5점, 만족도는 63.4점으로 필요성과 만족도의 격차는 10.1점으로 필요성과 만족도의 격차는 4개 영역에서 중간 수준임.





- 제도별로 필요성이 높은 사항은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직전 업무지시 자제' 순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보인 항목은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과 '집중근무시간 활성화'로 제조업이 많은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됨.

-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불필요한 야근줄이기'와 '퇴근직전 업무지시 자제', 그리고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순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제도는 '집중근무시간 활성화'와 '메모·구두·영상보고'의 활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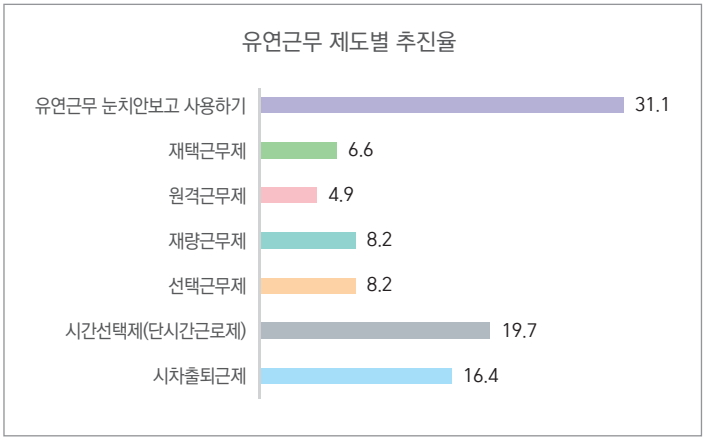
2. 유연근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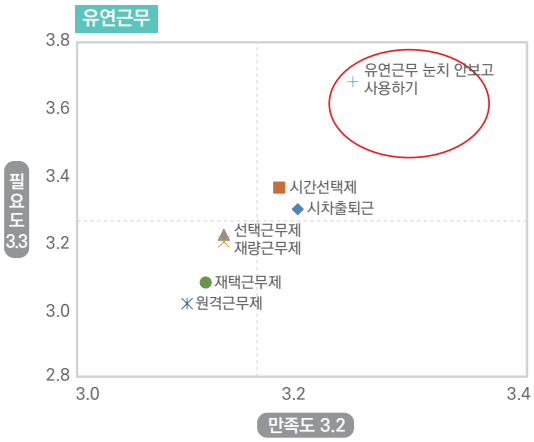
유연근무는 활성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평균 추진율은 13.58%이고, 세부 제도별로 응답기업의 31.1%가 '유연근무 눈치안보고 사용하기'를 실시중이고, 19.7%가 '시간선택제'를, 16.4%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함. '선택근무제'와 '재량근무제'는 각각 8.2%의 도입율을 보이고, '재택근무제'는 6.6%, '원격근무제'는 4.9%의 도입율을 보임.

유연근무 제도별 필요성과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점수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유연근무의 필요성 평균은 3.3점이고, 만족도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남.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필요성은 56.4점이고 만족도는 53.9점으로 필요성과 만족도의 격차가 크지 않고 4개 영역중에 격차가 가장 낮음.

- 항목별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유연근무 눈치안보고 사용하기'(4.2점), '시간선택제'(3.3점), '시차출퇴근제'(3.3)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보인 항목은 '원격근무'와 '재택근무'임. 근무혁신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많은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됨.

-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불필요한 '유연근무 눈치안보고 사용하기',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순이며, 그 외는 항목별로 큰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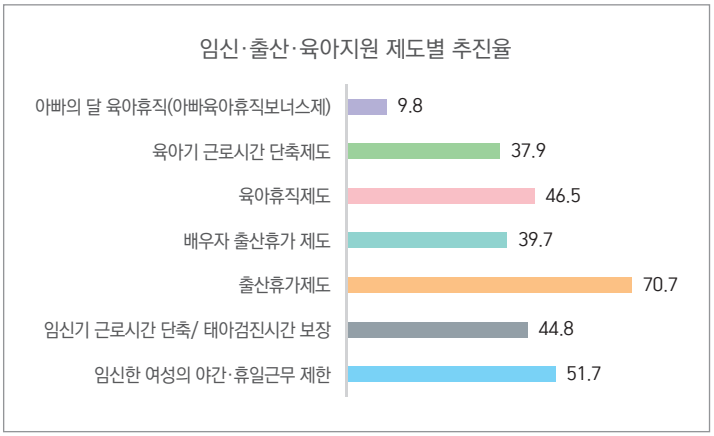
3. 임신·출산·육아지원제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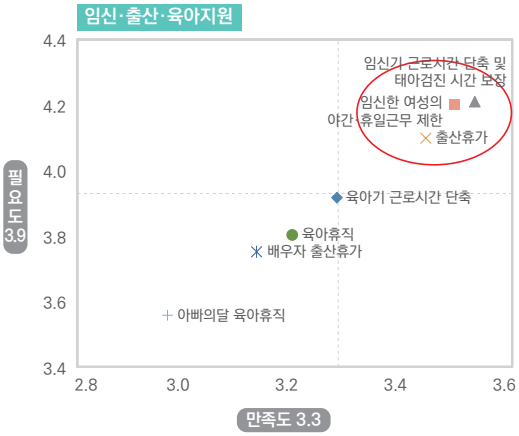
조사기업의 여성종업원 현황을 고려할 때 전남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의 임신·출산·육아지원제도 추진율은 높은 편임. 67개 강소기업과 스타기업 중 여성종업원이 3명 이상인 사업체는 44개소로 이들 기업의 70.7%가 '출산휴가'를 도입하고, 51.7%가 '임신한 여성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제한'을 실시중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보장'은 44.8%가 추진중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도입율은 39.7%임.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점수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필요성 평균은 3.9점이고, 만족도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남. 100점으로 환산하면 필요성은 73.4점이고, 만족도는 57.1점으로 필요성과 만족도의 격차는 16.3점으로 4개 영역중에 가장 큰 격차를 보임.

- 제도별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임신한 여성의 야간휴일근무 제한'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시간 보장'으로 필요성 점수가 4.2점으로 같고, 이어서'출산휴가제도' 순임.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보인 제도는'아빠의 달 육아휴직'으로 고용노동부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필요성 또한 낮은 것으로 짐작됨.

- 만족도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시간 보장'과, '임신한 여성의 야간·휴일근무 제한', '출산휴가제도'순으로 높고, '아빠의 달 육아휴직'의 만족도는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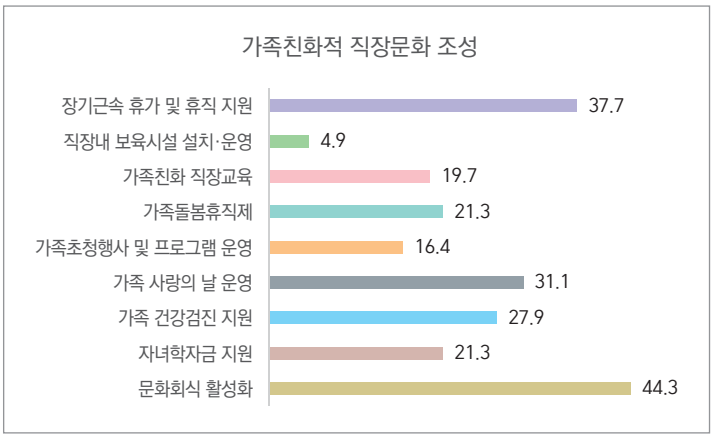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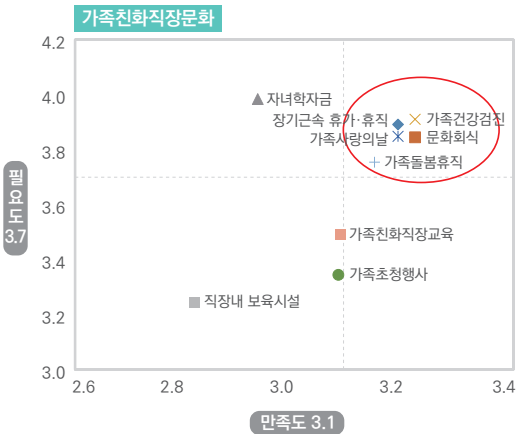


4.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문화회식 활성화'로 44.3%가 추진중임. 그 외 '가족사랑의 날 운영'은 31.1%,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19.7%의 추진율을 보임. 추진이 가장 낮은 사항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4.9%인 3개 사업체만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남.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점수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필요성 평균은 3.7점이고, 만족도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필요성은 67.5점이고 만족도는 52.3점으로 필요성과 만족도의 격차는 15.3점으로 4개 영역중에 두 번째로 격차가 큼.





- 항목별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학자금 지원', '가족 건강검진 지원', '장기근속 휴가 및 휴직지원'순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보인 항목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운영'으로 나타남. 분석결과에서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은 보육시설을 운영이나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만들기를 위한 직장교육 등 장기적인 플래보다 자녀학자금 지원이나 문화회식 활성화 등과 같은 당장에 실행가능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의 경우, '문화회식 활성화'와 '가족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장기근속 휴가 및 휴직 지원'이 만족도가 높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은 타 제도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낮음.

5. 전남 전체기업과 강소기업·스타기업의 추진현황 비교

전남의 강소기업·스타기업과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2019년」의 전남기업 평균을 영역별로 비교함.

근무혁신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의 근무혁신 추진율이 전남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전남의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은 근무혁신을 비교적 잘 추진하고 있으며, 퇴근 후 직장의 일이 개인의 삶으로 연장되는 관행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 **강소기업·스타기업 72.1%** 〉 전남기업 평균 67.5%
- '퇴근후 업무연락 자제': **강소기업·스타기업 70.5%** 〉 전남기업 평균 54.9%
- '자유로운 연가사용(연가사용 활성화)': **강소기업·스타기업 63.9%** 〉 전남기업 평균 29.7%

유연근무

전반에 걸쳐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의 추진율이 전남기업의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부분은 없었음. 그러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전남의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의 유연근무 추진율 높게 나타남. 따라서 절대적 수치만으로 도입율이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타 영역에 비해 활성화가 필요한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시간선택제': **강소기업·스타기업 14.7%** 〉 전남기업 평균 19.7%
- '시차출퇴근제': **강소기업·스타기업 20.2%** 〉 전남기업 평균 16.4%
- '재량근무제': **강소기업·스타기업 8.9%** 〉 전남기업 평균 8.2%

임신·출산·육아지원

임신출산육아지원 제도의 전반에서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의 임신·출산·육아지원 제도의 도입율이 전남기업의 평균보다 높음.

- '임신중 야간/휴일근로 제한': **강소기업·스타기업 51.7%** 〉 전남기업 평균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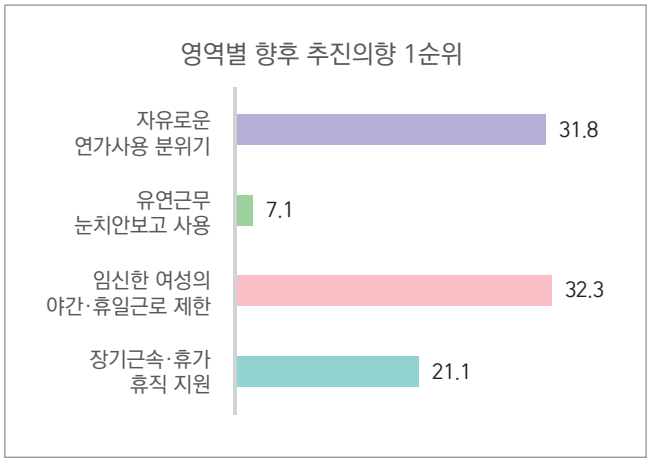
가족친화직장문화

직장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전남기업은 2.5%, 강소기업·스타기업은 4.9%임. 향후 설치운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전남기업은 0.6%이고, 강소기업·스타기업은 3.4%로 나타남.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의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율이 높지는 않으나, 전남기업 평균 보다는 높은 편임과 비교할 때 높은 편임.

03 일·생활균형 영역별 향후 추진의향

일·생활균형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추진할 의향이 높은 사항은 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나타남.

- 근무혁신 영역에서 향후 추진의향이 가장 높은 항목은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과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직전 업무지시 자제하기'순임.
- 유연근무 영역에서 응답기업의 7.1%가 향후 '유연근무 제도 눈치안보고 사용하기'를 추진하겠다고 답하여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나타남. 그 외 항목은 향후 추진의향이 높지 않음.
- 임신·출산·육아지원 제도에서 향후 도입의향이 가장 높은 제도는'임신한 여성의 야간근무, 휴일근무 제한'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 보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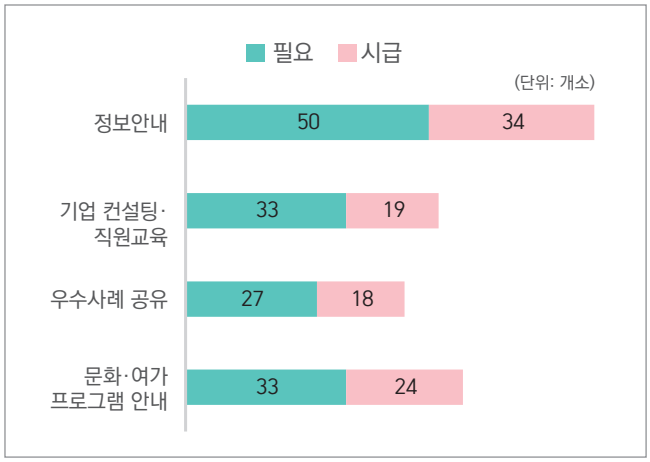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향후 도입의 의향이 높은 제도는 '장기근속 휴가휴직 지원'임. 그 외는 전반적으로 도입 의향이 높지 않음.

04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구 사항

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구를 분석한 결과 정보공유 〉 문화·여가프로그램 안내 〉 기업컨설팅 및 직원교육 〉 우수기업사례 공유 순으로 나타남.

- 총 61개 응답기업중 50개 사업체가 제도와 제도의 도입 시 기업에 제공되는 이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고, 이중 34개 기업은 시급성이 높음.
- 기업의 근로자가 활용가능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안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3개소이고, 이중 24개 기업은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의 도입과 추진을 위해 기업컨설팅과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33개소이고 이중 19개소는 필요성이 시급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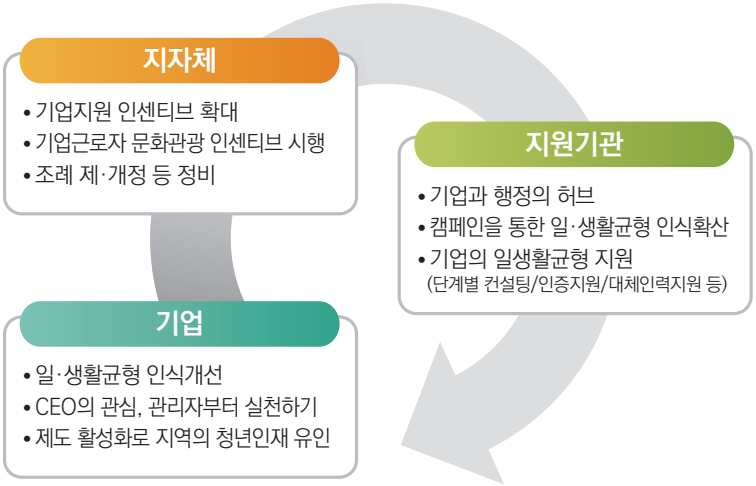
- 우수기업 사례 공유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7개소이고, 이중 18개소는 시급성이 높음.

05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촉진 정책의 방향과 과제

일·생활균형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확충, 전담기구의 기업지원 사업운영, 기업의 자발적인 제도도입이 중요함. 참여주체별로 실천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지자체

현재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일·생활균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하고, 기업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관광 시설 혜택도 전무한 상황으로 행정과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기업의 제도도입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업지원 인센티브의 분야와 내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문화관광 인센티브의 시행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일·생활균형 조례의 제·개정 등 정비가 필요함.

타 시도의 경우 일·생활균형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다양한 금융지원 및 가점부여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어 기업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비해 전남은 일·생활균형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2개로 확대가 필요함. 타 시도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또한 현재 전남은 기업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 혜택이 전혀 없음. 전남 도 내 22개 시군에서 활용가능한 문화관광 인프라 정보를 참조하여 기업의 근로자에게 제공할 혜택의 마련이 필요함. 시군의 문화관광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기업근로자가 문화관광 시설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에 부족하기 쉬운 근로자 복지를 지자체가 함께 지원할 것을 제안함.

시군별로 연계가능한 문화·관광 및 시설은 1)체험학습 및 휴양, 2)테마관광 및 체류형 관광, 3)지역자원 및 문화자원, 지역의 축제 및 문화체험, 숙박시설 및 레저, 해양스포츠 시설 등이 있음.(※ 〈표 1〉 시군별 연계가능한 문화·관광·시설 인프라 참조)

기 업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의 청년들에게 소구함으로써 우수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를 추진하고 무엇보다 일·생활균형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

지원기관

행정의 허브이자 일·생활균형의 전파자로서 우수 성공사례를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벤치마킹 의지를 견인해야 함.

〈 컨 설 팅〉 도입부터 실행 후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함. 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필요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기관을 연계함. 실행후에도 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신규제도 등을 안내하고 인증획득 지원

〈 캠 페 인〉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이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청년, 행정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인증지원〉 근무혁신, 가족친화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지원서 작성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업에 배포하고 기업 컨설팅 및 직원교육시 활용

06 기대효과

-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하는 윈-윈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연구조사에서 제도운영에 대한 전남 강소기업과 스타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음. 기업대상 인센티브의 확대와 근로자대상 문화관광시설 사용혜택의 제공으로 제도도입을 촉진하고 선도적 기업의 성공적 사례공유로 타 중소기업의 벤치마킹을 견인한다면 전남 중소기업 전반으로 일생활균형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임.

선도기업의 제도 활성화	벤치마킹을 통한 확산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정착
선도기업에 집중 노력하여 제도 도입 활성화 유도	벤치마킹을 통해 일반중소기업으로 제도 도입 확산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기업문화로 정착

[그림 1]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확산

전남여성가족재단 Jeonnam Foundation of Women & Family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TEL : 061-260-7300 FAX : 061-260-7319 www.jwomen.or.kr
Eojinnuri-gil 30, Samhyang-eup, Muan-gun, Jeollanam-do 58564